교육, 문화, 스포츠 전문 디지털 언론

코리아문화신문

카카오톡 채널추가 CH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모바일로 만나요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 디지털 언론분야를 생생하고 톡톡 튀는 현장정보를 기획·취재합니다.

주간 2021년 2월 22일 제3호 (매월 1~2회 발행)

구독 및 게재 문의 (062) 373-2353 FAX (062) 373-2354 E-mail : news525@naver.com

보름맞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제104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박동국, 한민정, 허순선교수님

전통의 곰삭은 '맛과 향기'가 펼쳐지는 무대

민족의 한(恨)과 설움을 '영상과 춤으로 승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 전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서의 희망, 그리고 기쁨의 염원을 담아 동국예술기획과 한국명인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명인원과 하늘땅풍물놀이 예술단이 주관하는 보름맞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제10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2월 25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해설과 춤과 음악으로 변주되는 가장 한국적인 춤사위로 전통의 원형 보존과 전승이라는 핵심기반으로 전통춤의 뿌리를 지켜가면서 전통춤과 소리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내재화시킨 '한국의 명인명무전' 은 우리 민족의 한(恨)과 설움을 영상과 춤으로서, 승화시켜 전통의 곰삭은 맛과 향기와 멋이 펼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04회를 이어오는 동안 "한국의 명인명무전" 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동 명무 故 김천흥 선생을 비롯하여 한 시대의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판소리 명창 故 박동진 선생, 호남검무 명무 故 한진옥 선생, 명무 故 김계화 선생, 일인창무극 故 공옥진 선생, 명무 故 이매방 선생, 배뱅이굿 故 이은관 선생, 여창가곡 故 김월하 선생, 가야금병창 故 박귀희 선생 등 전통 예술분야의 명인들이 무대 위에서 명멸했었다.

이 외에도 3,100여 명의 전통예술인들이 예술혼을 불태우며 150여 개의 전통춤과 소리가 깊은 인간의 정서를 녹여낸 춤사위와 소리의 향연을 선사했었다고 전했다.

우리의 전통을 살리며 그 맥을 이어온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중·소·대도시를 비롯해 해외(일본, 중국, 몽골, 미국, 하와이)무대 등 80여 곳에서 공연된 바,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31여 년의 세월 동안 알려왔었다. 또한, 예술공연의 역사 속에 함께 했던 예술인들로 연(連) 3,100여 명에 달하며, 국내· 외 70여 개 공연장과 극장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오는 제10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개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의 원형보존과 계승을 전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전하며, 보름맞이 광주시민을 위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보기 드문 보석과 같은 춤 사위 강선영류태평무 한민정 이수자, 호남검무 김자연 사단법인 광주한진옥류 호남검무보존회 이사장, 수건입춤 허순선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한량춤 이윤제 ,이명순 한성백제 국악대회 종합대상 수상, 동초수건춤 최해리가 아라리 전통문화원 원장, 밤길 박야림 살풀이춤 이수자, 진도북춤 최미령 하늘땅풍물놀이 예술단 단장, 판굿선반 이민영 전남과학대학 겸임교수, 승무 김청우 국립국악원 무용단 부수석, 이매방류살풀이춤 정유경 사단법인 광주한진옥류 호남검무보존회 이사 등, 원로와 중견무용가 40여 명이 출연하며,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 명예예술경영학 박사의 총예술감독의 해설과 한국명인원 정지희 원장의 구성기획으로 진행되는 아름다운 미학의 명품공연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신있게 전했다.

박동국
총예술감독 겸 해설
동국예술기획 대표

정지희
구성기획
한국명인원 원장

전무후무(全無後無)한 명인명무전의 전통과 계승을 이어 온 동국예술기획과 한국명인원은 1990년 11월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첫 무대를 연 뒤 31여 년 연(連) 횟수로 이번 제10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의 전통과 명인들의 혼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특히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2002년 월드컵 축하공연 (일본 동경 오페라하우스 소프라노 조수미 출연),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연출기획과 조흥은행 창립 99주년 (가수 이선희, 해바라기,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 테너 임웅균 교수,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장일남 교수 등 출연), 일본 오사카 민단 50주년(가수 윤수일, 주현미 출연), 광주MBC 방송 창사 30주년, KBC광주방송 창사 개국 판소리 다섯마당 기획연출,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를 연출한 김종학 PD, 극본 송지나 작가와 함께 SBS 사극 서동요 음악 연출 등 기획의 뛰어나고 투철한 정신의 소유자로 불리워진다.

국내 그 어떤 기획사에서도 생각지 못한 전통예술의 맥을 찾는 홀로아리랑으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 제10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과 제50회 "한국의 소리와 몸짓" 공연을 했으며, 민간 기획사로서는 全無後無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2014년 3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리더십 수상과 2015년 9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 대상과 2017년 12월 8일 문화유산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않았다.

또한 2018년 5월 1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과 2019년 4월 13일 문화유산 공로로 문화재청장 표창장을 받음으로써 큰 족적을 남겼고, 특히 1999년 1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한국 최초로 광주전남 남도 전통예술인추모제로, 국창 송흥록· 박유전· 임방울· 김창조 등 국내 명인명무 117명 위패봉안과 더불어 씻김굿과 판소리, 구례향제줄풍류, 창작국악실내악, 사물놀이, 한국무용, 인문학 콘서트 시와 노래가 춤을 만나 향기를 배접하다는 슬로건으로 독특한 연출기획을 선보였었다.

오는 2월 25일 보름맞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제10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공연은 민족의 한과 설움을 춤으로 승화하여 멋과 낭만과 감성의 풍미를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출연진, 임원진, 관계자 모두의 염원을 담아 보름맞이 전날 밤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찾는 광주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인터뷰 한진옥류호남검무의 수제자 **김 자 연**

고(故)한진옥 선생의 제자 중 현재 생존하는 제자로 30여년 이상 호남검무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김자연 선생님과 인터뷰를 청했다.

-호남검무에 대해서 일반인, 문화인에게 소개

검무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랜 민속춤이다. 호남검무는 팔도 검무 중에서 예향(藝鄕)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이 춤의 특징은 검을 손목으로 돌리면서 착착 소리 내어, 경쾌한 박자에 흥겹게 추는 것이다.

또 남성다운 시원한춤사위, 그리고 호남인의 쾌활하고 낙천적인 면과 한(恨)이 풍부한 감정과 정으로 춤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고인되신 한진옥 선생님의 제자중에서 최고 제자로 현재까지 전통의 맥을 이어오셨는데요? 앞으로 호남검무의 발전의 바램이 있으시다면~

호남지역의 명인 故한진옥이 특별히 아꼈던 호남검무는 호남검무 보존회(이사장 김자연)가 1991년 부터 원형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보존, 재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광주를 대표하는 사)광주한진옥류호남검무보존회로 새롭게 칭합니다. 저에게 남은 숙제는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호남검무가 팔도 검무 중에서도 최고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번공연이 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한진옥류 살풀이, 황진무의 재현사업과 학술발표회, 호남검무 강습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호남검무를 알리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 함께 무대에 오르는 제자분들의 간단한 소개

제가 광주에 학원을 개원하고 30여 년 동안 옆에서 한결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초등학생 때 만나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 보존회이사로써 다 들 열심히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 각각의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동아콩쿨, 국제콩쿨, kbs, 전주대사습등 전국에 권위있는 콩쿨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 광주에서 최고로 꼽는 임방울 국악제에서도 장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의 부수석, 여수시립 수석단원, 전)도립국악원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나주국악협회전담교수, 고등교사, 대학강사,예술철학박사로 교육계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번 공연에 솔로로 추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중견인(中堅人)으로 출연하는 두 제자 김청우, 정유경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제자로 팔일(八佾), 수요춤전 등 실력을 인정받은 무용가입니다. 같은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04회 보름맞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의 명인 명무전 참가 소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이 되었으면 하고, 늘 그랬듯이 담담(淡淡)하게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함께 해온 제자들과 무대에 오를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지금의 사)광주한진옥류호남검무보존회가 있기까지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호남검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프로필

- 사)광주한진옥류보존회
-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야제 축하공연
- 1998년 밀양 개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
- 2001년 월드컵 홍보를 위한 미국 텍사스주 호남검무 순회공연,
- 2008년 제 10회 여수진남국악대전 호남검무 종합대상(문화부장관상)
- 2010년 제14회 창원야철국악제 호남검무 종합대상(국회의장상) 수상
- 2016년 신년 맞이 나주 인문학 콘서트 호남검무 축하공연, 여수진남국악대전 초청 공연

/하인숙 기자